

河西 金麟厚의 生涯와 詩文學的 性向

金 成 鎮*

<目次>

- | | |
|------------------|------------------|
| I. 緒論 | III. 河西의 詩文學的 性向 |
| II. 河西의 生涯와 師友關係 | 1. 文以載道的 文學性向 |
| 1. 生涯와 時代狀況 | 2. 道와 文學의 效用性 |
| 2. 師友關係 | IV. 結論 |

<국문 초록>

16세기 호남 지방에서 학문과 절의와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하서 김인후는 漢詩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논문은 그의 시의 특질 및 시세계의 실질을 문학적 배경, 시관 등의 예비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고찰하였다.

문학적 배경에서는 시적 특질과 시세계의 실질을 형성하는 요인에 주목하여, 먼저 조정 戚臣의 不義와 士禍에 대응하고 인종을 향한 절의로 일관한 삶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慕齋 金安國의 문하로써 崔山斗, 宋純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실과 孔子·朱子의 학문을 탐구하고 濂洛의 理學을 공부하는 학문자세를 볼 수 있었고, 호남의 樓亭을 중심으로 모인 당시 문사들과 교류하며 돈독한 友誼를 나누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그의 시세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당시의 성리학자들이 그러했듯이 김인후의 시관은 道本文末, 詩本性情에 근거하였다. 무엇보다 성정을 중시하고, 이치를 탐구하며, 天真을 지향하는 면모를 보여 주었다. 시가 지녀야 할 본질은 바로 성정의 正과 眞이며, 이러

*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강사 / klh96203@hanmail.net

한 正과 眞을 시를 통해 얻어야 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관은 시세계의 실질이 되었다. 그의 시세계는 자아와 자연, 학문, 현실 세계가 일치하는 全一의 세계관에 기초하였다. 그리하여 자연세계는 자신의 성정을 도야하는 道體로써 현존의 실질적인 삶의 이치를 제시하고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대상이며, 초월적 이상을 지닌 의식 공간이었다. 학문 및 사상세계는 主敬, 主理에 입각하여 인간 본원적인 사랑과 人道的인 정의와 도덕적인 진실을 강조하였으며, 학문을 연마하여 자신을 수양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양상은 질박하고 광명정대한 ‘古’를 표준으로 하여 현실세계의 진실을 강구하였다. 忠·義를 중시하고 적절한 표상어를 통해 형상화하였다. 풍속과 인륜의 교화를 강조하고 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전달하였다. 信實한 교의 실천이 교유시를 통해 피력되었고, 역사를 읊조리며 현존의 표준을 제시하는 등 본연의 순수한 자아를 발현하고 있었다.

김인후 시의 수사적 특성은 措辭의 精緻의 묘미를 이루고, 意象의 회화적 성향을 지니며, 詩想 전개에 있어서 理趣가 지배하는 시적 경계라는 데 있다. 결국 載道的 시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理勝으로써 흥취를 通御하여 시의 미감을 축소시켰으며, 시적 대상인 자연경물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기보다는 오직 道를 밝히고 理를 탐구하는 구현체로 인식하였다. 明道的 探理的 선입견을 갖고 자연 경물을 바라보는 데서 초래하는 묘사의 미흡함을 배제할 수 없었다.

내용보다 외형, 정신보다 형식의 꾸밈을 추구하는 당시 사장학파의 작태를 배격하고 시문을 오직 存心과 內向의 방편으로 인식한 김인후는 당시의 호남 시단에서 점유했던 위치나 시작품의 量·質로 보아 漢詩史에서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존재였다. 宋純에서 鄭澈로 이어지는 중간에 위치하여 한시문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단지 中宗朝의 唐風을 지녔던 시인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시정하고 올바른 내린 뒤 시사적 위상을 정립해야 함을 절감하였다. 비록 젊어서 唐域에 드나들었지만 결국 朱子를 비롯한 濂洛의 시풍에 의존하고 그러한 詩境을 지향했던 것이다.

【주제어】 金仁厚, 文以載道, 士林派, 文藝意識, 道學派

I. 緒論

河西 金麟厚(1510~1560) 先生은 中宗5년에 태어나 仁宗朝를 거쳐 明宗15년까지 살았다. 그는 道學과 節義와 文章¹⁾을 모두 구비하였으며, 湖南詩壇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했던 巨儒였다. 河西가 살았던 시기는 勳舊派와 士林派간의 政治的·思想的 葛藤이 치열했던 混亂期이었으며, 이 때마다 士林派가 무참하게 禍를 당하였다. 戊午士禍(1498), 甲午士禍(1504), 어린 시절에 겪었던 己卯士禍(1519), 실제로 목도한 乙巳士禍(1545)는 당시의 실정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네 차례의 士禍는 결국 신진사립들의 득세로 이어지면서 조선왕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士林派가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성장해감에 따라 정치·사회·경제의 변동과 새로운 시대질서가 성립되는 시기였다.

士林派가 主唱했던 내용은 性理學이었고, 이 性理學은 土着的 學問의 뿌리를 내리면서 뛰어난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이 시대는 도학적 문풍이 조성되어가는 과정이었으며, 실천적 儒家精神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士林派의 文藝意識이 당시의 이데올로기인 性理學과 분리시킬 수 없으며, 더 나아가 文學 創作 理論의 토양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性理學이 人文·社會·自然의 전반을 설명하는 이론 체계를 세우고, 사상적인 지배가 공고해지면서 士林派의 文藝意識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文學論으로 발전하여갔다. 특히 中宗代에 이르러 文人들의 活動이 차차 활발하여졌다. 그래서 漢詩文學 또한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되었으며, 以後로 特出한 詩人들이 排出되어, 詩壇은 未曾有의 盛況을 이루었다.

金麟厚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道學, 節義, 文章에 힘쓰며, 1600餘首

1) 『正朝大王實錄』 卷44, 47章; 金麟厚, 『河西先生全集』 「續編」 外錄, 拾遺, 「王朝實錄抄」 “正祖曰 予於金河西 別有起慕焉 夫道學也節義也文章也 無一不備者獨河西一人矣”

의 많은 詩作品을 짓고 당시 湖南詩壇에서는 중추적 위치에 있었으며, 학자로서 文廟에 配享된 東國 18賢 중의 한사람이었다.²⁾ 이처럼 金麟厚는 당시의 湖南詩壇에서 점유했던 위치나 시작품의 量·質로 보아 漢詩史에서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논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한시사적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河西는 乙巳士禍 以後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후학을 교육하였으며, 때때로 江湖에 나아가 勝景을 感想하고 자신의 性情을 陶冶시켰을 뿐 아니라, 忠節을 詩文에 形象化하였다. 그리고 樓亭에 올라 당시의 詩人·文士등의 詩會를 열어 友誼를 敦篤히하고 湖南의 도학을 창시하는 입장에 섰다. 이러한 면들을 기초로 하여 그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시 세계를 고찰하기에 앞서 그의 생애와 시대적 상황 및 시문학적 사상의 簡便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河西의 生涯와 師友關係

1. 生涯와 時代狀況

文學作品은 作家精神과 意識의 소산이며, 作家는 필연적으로 그가 살았던 時代와 社會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때, 作家와 作品의 이해를 위해 作家의 삶과 자취와 그 時代背景을 탐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金麟厚의 많은 詩文 또한 그의 시대와 사회 속에서 형성된 내면 의식과 가치관의 투영이다. 또한 그의 「年譜」³⁾등을 통하여 생애 편력을 살펴보면 그것이 작품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考究하고자 한다.

그는 中宗 5年(1510) 7月 19日 全羅道 長城縣 麥洞里 (現 長城郡 黃龍

2) 『東國文廟十八賢年譜』, 「河西先生年譜」, 景文社, 1980, pp.103-109. 참조.

3) 金麟厚, 『河西集』 「續集」 外錄 卷1, 卷2, 「年譜別本」.

面 麥洞里)에서 태어났다. 字는 厚之, 號는 湛齋 또는 河西, 본관은 蔚山이다.

그는 나면서부터 모습이 단정하고 기개와 도량이 컸으며, 남다른 총명으로 神童이라 불리어 졌다. 5세에 이미 “宇宙洪荒大人居”란 聯句를 지었고, 5세 때 지은 「上元夕」⁴⁾은 田愚(1841~1922)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했던 시이다. 8세 때는 趙光祖(1482~1519)의 叔父 趙元紀(1457~1533)가 全羅監司로 있으면서 그를 불러 聯句를 지었는데, 탄복한 趙監司는 “長城神童天下文章”으로 글제를 하여 道內 諸生을 시험하였다. 9세 때는 奇遵(1492~1521)이 내려와 그를 ‘奇童’이라 칭하며, 후일 世子(仁宗)의 신하가 될 것을 예언하였고, 10세 때는 전라감사로 온 慕齋 金安國(1478~1543)에게 『小學』을 배우며 그로부터 ‘小友’란 稱號를 받았다. 13세 때는 『詩經』에 침잠하였고, 16세 무렵에는 韓愈의 글을 읽어 통달했으며, 18세 때는 己卯土禍로 同福에 귀양 온 新齋 崔山斗(1483~1536)에게 受學하였다. 이미 四書, 五經, 諸子, 史策뿐 만 아니라 天文, 地理, 百家, 衆技의 類까지도 널리 통달한 그를 崔公은 ‘秋水冰壺’라 일컬었다. 19세 때는 成均館에서 壯元으로 뽑힌 「七夕賦」로, 主宰한 大提學 李苻(1478~1534)을 놀라게 했다. 22세 때는 成運, 徐敬德, 白仁傑, 鄭惟吉 등과 함께 司馬試에 합격했고, 24세 때는 成均館에서 李滉(1501~1570)과 知音이 되어 講學에 힘썼다.⁵⁾ 30세 때는 製述官과 더불어 中國使臣과의 唱和에 대비할 인물로 뽑혔다.

31세 때 文科 丙科에 급제, 承文院 副正字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32세 때 대제학 金安國의 추천으로 湖堂에서 賜暇讀書하였는데, 그 때 같이 뽑힌 12인과는 修契를 맺어 平生토록 우의가 두터웠다. 같은 해 弘

4) 金麟厚, 『河西集』 「續集」 外錄 卷5. “高低隨地勢 早晚自天時 人言何足恤 明月本無私” ; 「年譜」. “田良齋愚書市後曰首聯譬則 心之當理也 尾聯譬則 心之無私也 此聖門仁體之妙也”

5) 李滉, 『退溪言行錄』 卷1, 「學問」. 李德弘의 기록에 “...所與交遊者 惟金河西一人而已”

文館 正字 檢 經筵典經 春秋館記事官에 제수되고, 33세 때는 弘文館 著作에 승진되었으며, 34세 때 또 弘文館 博士 檢 世子侍講院 說書로 승진되었다. 이때 世子(仁宗)의 輔導 책임을 전담케 된다. 같은 해 弘文館 副修撰 知製敎 檢 經筵檢討官으로 승진하는데, 이 해 筭子를 올려 己卯士禍에 희생된 사람들의 伸冤을 청하고, 『小學』, 『鄉約』의 책들을 다시 장려할 수 있도록 간청한다.⁶⁾ 이무렵 외척들의 알력으로 時事가 우려되자, 老親의 봉양을 구실로 歸鄉했다가 12월에 玉果縣監에 제수된다. 35세 때는 11월에 中宗이 승하하여, 다음해 5월 明의 弔使 張承憲과 唱和할 製述官으로 뽑혀 上京하나 士禍의 기미를 알고 곧 任所로 돌아온다. 같은 해 7월에 仁宗(1515~1545) 승하의 비보를 듣고 충격으로 기절, 소생한 뒤 사직하고 귀향하니, 돌연한 變고⁷⁾에 대해 忠憤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그는 매년 仁宗의 忌日이 되면 집 남쪽 卵山 속에 들어가 통곡하는데, 그 무렵 지은 「有所思」란 시가 전한다. 38세 때 成均館 典籍, 工曹正郎, 40세 때 成均館 典籍 44세 때 弘文館 校理, 45세 때 成均館 直講 등의 벼슬이 제수되었지만 모두 사퇴하니, 仕宦의 뜻을 끊고 오직 仁宗에 대한 節義를 지키고자 한 것이다.

39세 때 淳昌郡 雙置面 屯田里 鮎岩村에 초당을 짓고 訓蒙齋라 편액하고 후학들을 가르쳤는데, 鄭澈도 여기서 『大學』을 배웠다. 金壽恒은 “점안촌은 곧 河西의 武夷”⁸⁾라 하여 朱子의 故事에 비긴 바 있다.

退任 후 학문 연구와 저술,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지만, 울적한 심사는 詩酒로써 풀 수밖에 없었다.⁹⁾ 湖南歌壇에서의 詩作活動도 이 때 주로 이루어졌다. 저술과 연구 활동의 주요한 것을 들어 보면, 37세 때 『孝經刊誤跋』, 40세 때 『大學講義跋』을 짓고, 47세 때는 徐敬德(1489~1546)의

6) 『中宗實錄』 38年 癸卯 7月 20日, 22日條. 참조.

7) 「年譜別本」 36世. 참조. 仁宗의 昇遐를 小尹측의 弑害로 의심하였다.

8) 金麟厚, 『河西集』, 「續集」附錄, 「漁岩訓蒙齋韻」 “玉川鮎岩村 則河西先生之武夷也”

9) 金麟厚, 『河西集』, 「續集」卷2, 「有人問河西詩酒」 “吟詩因寄興 愛酒爲忘愁”

『讀周易詩』를 보고 次韻하여 공부하는 方式이 頓悟의 지름길만 찾아서는 안됨을 주장하였으며, 48세 때는 지금은 전하지 않는 『周易觀象篇』과 『西銘事天圖』를 지었다. 50세 때는 『太極圖說』 『四端七情說』을 강론하여, 이른바 『退高四七往復書』가 나오게 하였다. 또 明儒 羅欽順의 『人心道心說』을 지지하는 盧守愼에 반대하여, “人心 道心은 대개 다 動處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1세(1560 明宗 15年)때 사흘 전 즉 正月 14일 河西가 氣運이 고르지 못해서 藥을 올렸더니 집안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일 보름날이니 祭肉과 술을 준비하라” 하고 子女들로 하여금 祠堂에 奠를 드리도록 했으며, 보름날에는 病을 무릅쓰고 일찍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단정히 앉아 제사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당부하기를 “내가 죽은 뒤라도 乙巳年以後의 관작은 쓰지 말라. 因命吾死後 勿書 乙巳以後官爵”고 일렀다. 다음날 16일 病이 위급하자 자리를 바로 하고 홀연히 歿하였다.

이 해 3月 癸酉日에 長城縣 大麥洞 願堂山 子坐午向 별안에서 장사했으니 그의 뜻에 따른 것이다.

死後 4年 후에 玉果에 詠歸亭祠(書院), 宣祖 3年(1570)에는 淳昌에 華山祠와 漁巖祠가 건립되었고, 宣祖 23年(1590) 건립된 書院이 顯宗 3年(1662)에 筆巖書院으로 賜額되었다. 현종 9年(1668)에는 吏曹判書 겸 弘文館 大提學이 증직되고, 同王 10年(1669)에는 文靖이란 시호가 내렸다. 또, 英祖朝부터 꾸준히 계속돼 온 文廟從亨의 上疏가 正祖 20年(1796)에 윤택되어, 領議政이라는 最高의 官職을 追贈하고 諡號를 文正으로 고쳐 내렸다. ‘道德博聞’에서 ‘文’을, ‘以正服人’에서 ‘正’이라 한 것이다. 이어 正祖命에 의해 편찬된 文集이 純祖 2年(1802)에 완성되니, 이것이 현존 『河西先生全集』 八冊이며, 續集(續編)은 1940년에 간행된다.

丁益燮은 그의 生涯를 ① 修學 시대 (1세~30세), ② 仕宦 시대 (31세~36세), ③ 著作 연구 시대 (37~51)로 三分하여, 그의 일생이 거의 수학, 저작, 연구하는 일로 보내졌다고 논평한 바 있는데, 사환 시대의 벼슬도 대체로 학문과 연관이 많았음을 볼 때 적절한 지적이라 본다.

한편, 그가 살았던 中宗~明宗 시절은 士林에겐 참으로 격변의 시기였다.¹⁰⁾ 中宗은 反正으로 추대된 王답게 燕山朝의 廢政을 시정하고 유교 정치의 복구와 敎學의 강화를 최대의 과제로 삼아 性理學을 장려하고 신진사류인 趙光祖를 등용하였다. 趙光祖는 이른바 至治主義, 즉 유교적 理想政治를 목표로 하여, 鄉約과 『小學』 교육을 장려하며 賢良科를 실시하는 등 개혁을 단행했으나, 급진적으로 매사를 밀어부치다가 勳舊派의 모략을 받아 同志인 金淨, 奇遵 등과 함께 賜死되니, 이것이 바로 己卯士禍(1519)이다. 이 때 김인후의 나이 10세였다. 스승 金安國, 崔山斗는 다 이때 연루되어 겨우 죽음을 면하고 오랜 귀양살이를 하였던 터이다. 이어 12세 때는 이 士禍의 한 여파로 辛巳誣獄(1521)이 일어나 또 한 번 士林이 화를 입게 된다.

中宗 말엽, 士林이 再登用되는 시기에 經世의 뜻을 품고 벼슬길에 나갔던 그는, 士林의 참화를 예견하고 귀향, 은거함으로써 禍를 모면했지만 36세 때 明宗 즉위와 함께 벌어진 乙巳士禍(1545)는 그의 運命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다. 異腹兄弟間의 王位 계승을 둘러싸고 외척세력, 곧 大尹과 小尹의 파쟁 와중에서 仁宗이 갑자기 돌아가자, 정권을 장악한 尹元衡 등 小尹 일파가 尹任 등 大尹 일파를 역모를 꾀한다고 誣告함으로써 아울러 士林勢力을 숙청한 것이 乙巳士禍이다. 또 2년 뒤 良才驛壁書事件을 계기로 발생한 丁未士禍(1547) 때는 그와 道義之交을 나누던 同門의 先輩 宋麟壽(1487~1547)와 벗 林亨秀(1504~1547)가 원통하게 죽고 知諳인 柳希春, 盧守愼이 이후 근 20年間이나 流配생활을 하게 된다. 그의 의식 속에 이러한 일련의 참화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겠는지 익히 짐작할 수 있는 바다.

그러나 이 같은 박해와 시련이 계속되는 중에서도, 中央進出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초야에 숨은 士林들은 不運의 내면적 昇華의 결과로서, 麗末 이래 발전해 오던 性理學에서 괄목할 만큼 큰 학문적 성과를 거두

10)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77. 참조.

었으니, 巨儒들의 출현을 보게 된 것도 이 시기이며, 中宗 38년에 설립된 周世鵬의 白雲洞書院을 시발로 전국 각처에 많은 書院이 세워진 것도 이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이 때 文學界에도 기량 있는 작가들이 무수히 배출되어 이른바 “穆陵盛世”를 예비하고 있었으니, 許筠의 지적처럼,¹¹⁾ 士林들의 험난 고초가 역설적으로 학문과 문학 발달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2. 師友關係

金麟厚가 스승으로 섬겼던 사람은 慕齋 金安國, 新齋 崔山斗, 俛仰亭 宋純 등 세 분이였다. 「年譜」에 의하면 金安國에겐 10세 때, 崔山斗에겐 18세 때 수업하였다 하였으나, 宋純의 경우는 ‘처음’에 배웠다고만 되어 있지 어느 때인지 분명치 않다.

慕齋 金安國(1478~1543)에게는 그의 全羅監司 시절에 찾아뵈고 朱子の 『小學』을 배웠다. 金安國은 金宏弼의 문인으로, 동문인 趙光祖 등과 至治主義 유학과를 형성한 道學者이다. 慶尙監司 시절에는 모든 邑의 鄉校에 『小學』을 보급하여 가르치게 할 만큼 『小學』을 중요시하였는데, 金麟厚가 평생 『小學』에 절실히 공을 들인 것은 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己卯士禍 때 아우 正國과 더불어 화를 입지만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축출되어 後進을 양성하다가 후일 再起用되며, 死後 仁宗 묘정에 배향되었다. 金麟厚에게 鄭夢周, 吉再, 金淑滋, 金宗直, 金宏弼로 이어지는 도학의 학통을 전했으며,¹²⁾ 禮學의 전수자이기도 했다.¹³⁾

新齋 崔山斗(1483~1536)에게는 己卯士禍로 그가 同福에 귀양 와 있을 때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中宗朝에 舍人을 지냈고, 經筵 四學士로 명성

11) 許筠, 『惺叟詩話』 “文章不在富貴榮耀 而經歷險難 得江山之助 然後可以入妙”

12) 姜敷錫, 『典故大方』 卷3, 「儒賢淵源圖」, 漢陽書院, 1924. 참조.

13) 黃元九, 「李朝 禮學의 形成過程」, 『東方學志』 6, 연세대학교 동방학 연구소, 1967. 참조.

을 떨친 性理學者이며 문장에 뛰어나 尹衢, 柳希春과 더불어 ‘湖南三傑’로 일컬어지던 인물이다. 15년 만에 귀양이 풀렸지만 이후 그는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俛仰亭 宋純(1493~1582)은 右參贊을 끝으로 潭陽 齋月峰 아래 石林精舍와 俛仰亭을 짓고 讀書와 歌曲으로 한가로이 즐긴 風流人이다. 漢詩文 뿐만 아니라, 시조 20여수와 가사 「俛仰亭歌」를 남긴 국문학의 거장이며 湖南歌壇의 중추적 人物인데, 그의 국문학적 素養과 風流的 기질은 金麟厚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보여 진다. 일찍이 金麟厚를 매우 사랑하고 기대하였던 바, 이는 그가 지은 金麟厚의 父 齡의 墓碣銘에도 나타난다.¹⁴⁾

交友로는 柳希春, 梁山甫, 李恒, 李滉, 盧守愼, 鄭惟吉, 林亨秀, 林億齡, 白光弘, 李洪男, 吳祥, 尹潔, 李後白, 金若默, 宋寅, 高敬命, 羅世纘, 李鶴 등이 있는데, 다 學問이 깊었거나, 志節로 이름 높았거나, 文章이 뛰어났던 인물들로서 이들과의 수많은 詩敎가 文集에 나타나 있다. 이들과는 또 사돈이나 同壻 사이,¹⁵⁾ 小科 大科의 同榜, 湖堂修契,¹⁶⁾ 歌壇에서의 活動 등으로 깊은 因緣을 맺고 있다.

門下人士¹⁷⁾는 鄭澈, 奇大升, 梁子徵, 趙希文, 卞成溫, 吳健, 吳希吉, 金啓, 申覺, 金景壽 등이다. 이 중 鄭澈은 歌辭文學의 대가이며, 奇大升은 『四七論辨』의 성리학자로 저명하다. 梁子徵, 趙希文은 사위이기도 한데 文名이 있었고, 卞成溫, 奇孝諫, 吳希吉, 金啓, 申覺은 학자로 유명하다. 또, 金景壽는 壬亂時 長城南門倡義의 主役이다.¹⁸⁾

14) 宋純, 『俛仰集』 卷4, 「學生金公墓碣銘」 “男麟厚 生異粹異 自七八歲 名譽大行 德業文詞 俱冠一世 人方以遠大爲期待”

15) 柳希春, 梁山甫, 李恒은 사돈간이며 金若默은 同壻다.

16) 李滉, 鄭惟吉, 林亨秀, 李洪男, 羅世纘은 湖堂修契에 함께 든 인물들이다.

17) 尹榮善編, 『朝鮮儒賢淵源圖』, 東文堂, 1941, pp.4-5.

18) 洪良浩, 『耳溪集』, 「湖南鰲山南門倡義碑銘」. 참조.

Ⅲ. 河西의 詩文學的 性向

1. 文以載道的 文學性向

16세기 士林派는 道學을 治理의 原理로 실천하려는 文學觀을 고수하였으며, 이와 대립되는 勳舊派는 勳舊戚臣의 官僚들이 중심이 된 文學觀을 고수하였다. 前者들은 道學派, 後者들을 詞章派라 하고, 이들의 문학을 處士文學과 官僚文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16세기를 전후한 일련의 정치권력의 투쟁은 文學 論爭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金麟厚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道學派의 한 사람으로 그의 文學觀은 바로 載道的 文學觀이었다. 以道爲文의 載道的 文學觀을 주장한 道學派를 기존의 文學史에서 文學을 道學에 종속시켜 문학의 독자적 발전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文學이 가지는 本質的인 情緒와 快樂을 부정하고 道德的 敎訓性만을 강조하는 效用論에 빠져 文學의 本質을 歪曲하였다고 批判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文學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本質的인 면에서 文學을 再檢討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16세기 士林派를 중심으로 한 문학 연구의 새로운 평가이다.

金麟厚가 본격적으로 文學論을 편 글은 그의 文集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文集 어디에도 ‘文以載道’나 ‘以道爲文’이니 하는 표현을 발견할 수 없다. 단지 그는 ‘道와 文’의 관계에 대해 ‘道本文末’의 견해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道本文末’은 결국 文以載道가 전제된 文學觀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金麟厚는 道義와 仁義를 根本으로 崇尚하며 記誦과 詞章을 비루하게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文學을 輕視했던 것은 아니다. 金麟厚가 道學者로서 약1600餘首에 달하는 詩를 남긴 것을 보면 詩作 活動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릇 文章이란 道에 있어서 末이요 簡牘은 또 그 末이다. 그러나 그 末의 무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本의 깊음을 엿볼 수 있다.¹⁹⁾

이는 金麟厚가 文章보다 道를 중시하고 있으나 道의 깊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文章이라는 것으로, 金麟厚가 문장을 경시했다고 볼 수 없는 준거가 된다.

김인후의 道本文末은 다음의 시작품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晦翁我先覺	朱晦翁 선생은 우리의 先覺
有德而有言	德이 있으니 으레 말이 있네
尋常咳唾餘	심상한 咳唾의 나머지일망정
豈伊枝葉繁	어찌 그 枝葉만이 번성하겠나
(中略)	
艱深及巧麗	艱深을 일삼거나 巧麗한 무리는
詎敢窺牆垣	어찌 감히 그 담장을 들여다보리.
(中略)	
文章特末事	문장이란 말사에 지나지 않는 것
神鑑要不昏	神鑑이 꼭 어둡지 않아야 하오
吾儕儘狂簡	우리들은 그대로 狂簡일진데
此義期相敦	이 뜻이 독실하기를 기약합시다. ²⁰⁾

그가 朱子の 시가 훌륭하다고 한 것은 文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道를 잘 닦은 有德者였기 때문이었다. 有德者는 必有言이므로 朱子の 시는 바로 必有德의 결과이다. 따라서 朱子の 시는 심상한 咳唾일망정 그 枝葉만 번성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艱深이나 巧麗같은 文章表現을 일삼는 자는 朱子の 文學世界를 엿볼 수 없다고 하면서 文章이란 말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神鑑에 어둡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모두 그가

19) 金麟厚, 『河西全集』 卷11, 「己卯諸賢帖序」 “夫文章之於道末矣 而簡牘則又其末也 然由其末之茂 而可見其本之深觀”

20) 金麟厚, 『河西全集』 卷3, 五言古詩, 「謝廉伯蓬宙贈悔庵詩」, p.78.

道本文末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견해들이다.

또, 修辭的 面貌인 文藝를 技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道義를 중시하고 있는 시를 살펴보자.

吾聞技藝特末事	내 들으니 文藝란 하나의 末事라
紛紛豈足爭其多	잘한 던들 그 까짓게 무엇이 대단하리
優游涵泳道義府	道義 속에 優游하고 涵泳하면
胸中樂地存中和	가슴 속의 樂地에 中和가 보존되며
居仁從自致無敵	인에 살면 스스로 無敵을 이루니
特銜浮藻其實那	浮藻(文章)를 잘하면 그 실상은 어찌하지 ²¹⁾

(後略)

문방사우[紙筆硯墨]를 의인화하여, 文成將軍[筆]의 氣像이 당당할지라도 그것은 技藝요, 末事に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면서, 사람이 하여야 할 것은 오직 道義에 優游涵泳하면 가슴속의 樂地에 中和가 보존되며, 仁을 바탕으로 삼는 삶은 스스로 無敵을 이루게 되니 文章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文이 末事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文學觀을 가진 金麟厚는 記誦이나 文章 공부는 徒勞일 뿐이라고 하고 자신은 비록 詞章의 버릇을 고치지 못해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있지만 詞章을 記誦하는데 골몰하지 말고 근본 道義를 알아 전공하라고 후학들에게 일깨우고 있다.

2. 道와 文學의 效用性

朱子の 詩가 道를 신고 있어 훌륭한 평을 받았던 것처럼, 그를 典範으로 삼아 닦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인 道義를 익히고 仁에 居해야 한다. 따라서 학자가 힘써야 할 것은 文章을 교묘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詞章이 아니라 道學이다. 道를 닦으면 德이 있게 되고 德을 갖추면 반드시

21) 金麟厚, 『河西全集』 卷4, 七言古詩, 「筆戰」, p.92.

말이 있으니, 그 말을 기록하면 훌륭한 詩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金麟厚를 포함한 道學家들의 載道的 文學觀에 대하여 대개의 論者들이 그 道라고 하는 것을 倫理나 道德 같은 教訓이거나 儒家의 사상적 이념만으로 인식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載道的 文學이 추구하는 情緒나 美的 快樂은 부정한다고 생각한다. 쉽게 생각하면 道란 道義, 秩序, 理念 등이 연상되므로 載道的 文學 역시 도덕적 교훈을 내포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道德的 觀念詩를 보면, 교훈적 道德과 儒家의 理念으로 點綴되어 있다. 그러나 道란 단순히 化石화된 도덕이나 추상적인 儒家의 이념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道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길로 지극히 가까이 있는 삶의 원리이다.

『中庸』에서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라고 하였고, 程子は 다시 “性之善 謂之道 道與性一也”²²⁾라 하여 인간 본연의 性을 善으로 본 뒤 性과 道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朱子 역시 “性者 人所稟受之實者 事物當然之理也”²³⁾라고 한 뒤 性을 道의 형체로 이해하였다. 결국 性情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稟賦받은 바의 實質이자 모든 사물의 당연한 이치를 의미한다. 寒暄堂 金宏弼이 43세에 쓴 「寒氷戒」라는 글에서, “오직 道가 중요한 것이요 道라는 게 별것이 아니라 그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니 일마다 물건마다 일용의 당연한 이치 아닌 것이 없다.”²⁴⁾라고 하면서 道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생활규범이며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자기 수양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晦齋 李彦迪도 道에 대해 언급한 것들이 있는데 그 단편을 살펴보자.

군자의 道는 지극히 가까운 것이요 먼 것이 아니며, 지극히 實한 것이요 虛한 것이 아니다. 人事를 떠나서 道를 구한다는 것은 空虛의 경지에 빠지지 않을 수

22) 『二程全書』 卷25, 「暢潛道本」. 趙麟永, 『河西 金麟厚 詩研究 : 道學의 世界 認識과 詩의 範疇』, 아세아문화사, 1994.에서 재인용.

23) 『性理大全』 卷29, 「性理」 1, 「性」. 趙麟永, 위의 책에서 재인용.

24) 朴鍾鴻, 「性理學의 發達」에서 재인용, 『韓國史』 11, 國史編纂委員會, 1981.

없는 것이니 實學이 아니다. 天理는 人事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道 밖에 物이 없고 物밖에 道가 없다. 下學人事하는 것이 上學天理하는 것이다. 道는 形器를 떠난 것이 아니니, 形器를 떠나서 道를 구한다면 그것은 道라고 할 수 없다.²⁵⁾

이것은 모두 天理가 人事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道가 物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下學人事가 곧 上學天理임을 주장하여 道란 사람의 삶에 지극히 가까운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金麟厚의 도에 대한 관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金麟厚의 도에 관한 관념도 이와 비슷함을 그의 詩作品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道在尋常裡	심상한 속에 道가 있는데
人惟病不求	사람이 찾지 않아 그제 병일세
親親與敬長	아버이 공경하고 어른 공경함이
堯舜豈他由	堯舜의 길 어찌 딴 길로 말미암으리 ²⁶⁾

도라는 것은 심상한데 있을 뿐인데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버이를 봉양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지극히 예사로운 일이 요순에 이르는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음과 같이 읊었다.

有苗或有秀	싹이 간혹 이삭을 패긴 하지만
鮮克有至實	열매 맺는 경우란 좀 드물단다
乃翁號爲儒	네 아버지는 명색이 선비라지만
亦徒以文筆	역시 그저 文筆에 그칠 뿐이야
人皆可堯舜	사람마다 堯舜이 될 수 있는 것
非難勝一匹	一匹을 이기기란 어렵지 않아
道實人共知	道란 실로 사람이 다 아는 거지
非有他奇術	다른 신기한 術이 있는 건 아냐

25) 朴鍾鴻, 위의 논문에서 참조.

26) 金麟厚, 『河西全集』 卷5, 五言絕句, 「示學者 其一」, p.120.

革絲自能言	말할 줄 알게 되면 革絲를 배우고
席食別自七	일곱 살 때부터는 席食을 구별
孝弟有知能	孝悌란 良知와 良能이 있고
矯質在溫栗	矯質은 溫栗에 달렸느니라
須知性中間	꼭 알아야 할 것은 性の 中間에
本自非有物	본시가 物에 있진 않은 거란다 ²⁷⁾

“文章에 있어서 道는 문학적 행위를 구속하는 觀念이 아니고 作者의 정성스런 뜻과 사물을 보려고 하는 眼目에 의하여 文章을 통해 진실된 人生 또는 진실된 人生의 一面을 드러낸 참된 文章의 참된 내용”²⁸⁾이라는 견해를 펼 바 있다. 그리하여 鄭堯一은 載道的 文學觀은 글의 素材나 題材를 道德의 문제에 한정하는 文學觀과 구별되며, 喜怒哀樂의 표현을 제한하기 위한 目的文學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²⁹⁾

한편, 道와 文을 本末의 관계로 파악한 것을 道義에 優游涵泳하는 仁義를 바탕으로 삼는 삶을 중시하고 文藝는 技藝, 末事に 지나지 않으므로 文章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밝혔을 뿐, 文學을 부정한 것도 아니다. 道學者들은 文詞를 華美하게 다듬는데 빠져 道를 멀리 하는 것을 경계했을 뿐이다.

金麟厚가 文學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남긴 시가 무려 약 1600여 수가 된다는 점에서도 짐작이 가지만 어려서 詩的 재능을 인정 받았고, 13세 때에 이미 “시를 배우지 못하면 설 수가 없다”³⁰⁾라고 성현의 교훈임을 깨닫고 『詩經』을 열심히 공부한 점들로 보아, 그가 詩를 경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朱子의 말을 인용하여, “몸을 닦아 집안에 미치고 천하를 평균하는 道 역시 다른 데서 구함을 기다리지

27) 金麟厚, 『河西全集』 卷3, 五言古詩, 「敬次陶翁韻示虎兒」, p.75.

28) 鄭堯一, 「韓國古典文學理論으로서의 道德論 研究」, 서울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4, p.45.

29) 鄭堯一, 위의 논문, p.64. 참조.

30) 『國譯 河西全集』, 附錄 卷2, 「敘述」, p.262. “不學詩無而立”

않고 『詩經』에서 얻을 수 있을 것”³¹⁾이라고 하면서,

다만 마땅히 그 지의의 귀결되는 바를 고찰하고 그 性情의 사정을 찾아서 우유하고 영탄하고 침침하고 반복하면, 그 사이에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흥기된 바 있어 스스로 그만두려 해도 그만두지 못할 것입니다.³²⁾

라고 하여 『詩經』을 잘 읽으면 好善惡惡之心이 興起되어 스스로 좋아하고 싫어하기를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즉 『詩經』을 요령껏 讀書하면 性情을 醇化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는 이보다 앞서 『詩經』의 經된 까닭이 거기에 “邪와 正이 있고, 美와 刺가 있으며, 俗尙의 아름답고 낫은 것과 정치의 잘잘못과 국가의 興廢가 모두 갖추어 있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³³⁾이라고 한 바 있다. 『詩經』에는 인간 세상사의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이것을 보면, 인간의 진실 된 삶이나 세상을 경영하는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金麟厚가 『詩經』을 性情의 醇化와 人事나 治世의 원리를 얻을 수 있다는 道學的 效用論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 문학으로서의 정서적 쾌락의 추구나 章句의 華美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가 詩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만은 『詩經』에 대한 이러한 태도로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金麟厚의 시의 긍정적인 태도는 시의 性情論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는 “詩道는 性情의 근본이라 읊어 보면 善惡이 분명하다.”³⁴⁾라고 하였다. 詩란 性情에서 우러나는 것이므로 性情의 어떠한에 따라 시의 내용

31) 『國譯 河西全集』, 附錄 卷2, 「敘述」, p.262.

32) 金麟厚, 『河西全集』 卷12, 「策」 “但當考其 指意之所歸 尋其性情之邪正 而優游詠嘆 沈浸反覆之際 蓋有以興起其好善惡惡之心 而自有不能已焉者矣”

33) 金麟厚, 『河西全集』 卷12, 「策」 “邪有正有美有刺 而俗尙之美惡政治之得失 國家之廢興靡不畢備”

34) 金麟厚, 『河西全集』 卷6, 七言絕句, 「吟詩景范仲明 十五」 “詩道非他本性情 吟來善惡各分明”

의 善惡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난다. 따라서 作詩者는 시를 짓기 위해 詞章을 꾸미는 것보다 먼저 性情 醇化를 위해 道學에 힘써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詩道는 性情이 근본이므로 시가 性情에 종속되어 시는 性情에 아무런 작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性情이 物에 부딪혀 일어난 感興을 作詩하여 읊조림으로써 性情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다. 金麟厚는 이점에 대해서, “周나라 시는 본래 감격이 많으니 읊조리면 性情이 함양되거든”³⁵⁾이라고 하여, 시를 吟詠함으로써 性情醇化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醇化하는 데는 ‘思無邪’한 周詩와 같은 것이라야 한다. 이처럼 시는 性情에서 우러나는 것이기도 하면서, 시의 吟詠을 통해서 性情을 醇化시킬 수도 있으니, 性情을 醇化할 시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性情을 醇化하는데 힘써야 하므로 양자는 서로 相補的 關係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金麟厚를 포함한 도학가들의 載道的 文學觀이 道文을 本末의 關係로 파악하고 있던 하지만, 詞章을 꾸미는 데 빠지지 않는 한 문학의 效用性에 대해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긍정적 태도가 性情을 醇化시킨다는 道學的 측면에 한정되어 있음도 사실이다.

그런데 性情醇化에 대해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金麟厚는 앞에서 “性的 中間에는 본래 物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物이 性에 끼이는 것은 心이 動할 때 外物에 유혹이 되어 主一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俗物이 되어 진실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性情의 醇化는 사람을 보다 진실 되게 살도록 하는 근본이다.

그런데 마음을 진실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靜에 침잠하여 마음의 主宰가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道學家들이 말하는 修己의 원리이다. 이들이 자연에 歸依하는 것도 자연이 心을 靜에 침잠케 하여 敬으로 主를 삼게 할 수 있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자연도 物이긴

35) 金麟厚, 『河西全集』 卷5, 「梁季明(子淳 號 支巖)因仲明求寫詩書正文題目 其二」, p.118. “周詩多感激 吟詠性情涵”

마찬가지지만, 道學家들은 자연 속의 공간을 현실의 세속적인 공간과 다르게 인식하였고, 그 속의 자연물도 자신의 性을 더럽혀진 性이 온전케 된다고 생각했다. 이같은 태도는 그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명분을 찾아 주었으며, 그 속에서 자연을 읊조렸던 江湖詩도 바로 性情의 醇化로 생각했다. 도학가들이 현세의 治國 平天下를 최고의 이상으로 생각했으면서도 현실에 문을 닫고 아연에 침잠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治人は 수기가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며, 어떻게 治人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는가가 그들의 목표다. 왜냐하면 修己가 없는 治人は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IV. 結論

지금까지 논의한 河西 金麟厚의 生涯와 師友關係, 그리고 詩文學의 性向은 既存의 研究 成果를 바탕으로 하여 그의 詩가 지닌 個別性 및 詩世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김인후가 살았던 16세기는 勳舊勢力과 新進勢力 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시기였다. 이 가운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己卯士禍와 乙巳士禍는 그가 士林의 賢士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에게는 학문적 감화를 받게 되기도 하였으며 목전에 겪었던 을사사화는 당시의 현실을 바고 잡고자 하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그와 仁宗과의 遭遇는 節義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게 하였다.

學問的 交遊 및 師承 관계에 있어서 김인후는 奇遵, 金安國, 崔山斗, 朴祥, 宋純 등에게 학문을 傳受받았고 奇大升, 鄭澈, 高敬命, 金成遠, 趙希文, 梁子徵, 卞成溫, 白光弘, 李至男, 奇孝諫, 南彦紀 등에게 講學하였다. 특히 鄭澈이 金麟厚와 宋純의 門下에서 수업하였고,³⁶⁾ 김인후 역시

송순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는 사실은 조선 중기 한시사의 단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가 스승으로 모시었던 金安國, 崔山斗, 宋純 등은 그의 학문적 깊이를 심화하고 사상적 체계를 확립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송순과의 만남은 김인후가 타고난 시적 재질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시적 素養과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으며 남다른 情理를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시인 문사들은 김인후의 시학 및 인물에 대해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는 김인후의 시의식을 정립하는데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고 본다.

金仁厚는 당시의 湖南詩壇에서 시인·문사들과 더불어 건전한 시풍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詩經』, 『楚辭』와 같은 典範을 시학의 표준으로 삼는 전통적인 詩經을 준수하며 자기 고유의 意境을 제시함으로써 당시의 시단 및 사림 계층에서 자신의 情感, 思想, 經驗 등을 범주화, 정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金仁厚의 시세계의 자아와 세계의 통일을 기하는 전일적 세계관의 이행에 있다. 곧, 인간과 자연과 학문과 현실이 서로 상이한 복합성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고 관통된 상호 인과의 통일성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金仁厚의 시세계의 실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연세계 뿐 아니라 학문세계, 현실세계에 대한 시적 양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의 당위성을 지닌다.

이와 같이 金仁厚의 詩文學的 性向은 載道的 文學觀이라 할 수 있다. ‘文以載道’나 ‘以道爲文’의 표현은 발견할 수 없지만 道와 文의 관계를 ‘道本文末’의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 ‘道本文末’은 결국 ‘文以載道’가 전제된 문학관이라 할 수 있다. 김인후는 道義와 仁義를 숭상하며 記誦과 詞章을 비루하게 여겼지만 문학을 경시한 것은 아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시작품은 시작 활동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36) 鄭澈, 『松江集』, 「別集」卷6. “金河西林石川奇高峰 皆私淑從師者也”

인후는 道와 文을 本末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지만 사장에 빠지지 않는 한 문학의 效用性에 대해서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제도적 문학관을 도덕의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素材나 題材를 자연이나 경물 등으로 확대하여 자연 속에서 은거하면서 지은 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김인후는 士林派의 한사람으로서 道本文末의 載道的 文學觀의 입장이었지만 문학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문학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 載道라는 의미 또한 윤리 도덕의 차원을 넘어 自然에 침잠하여 性情을 涵養하며, 修己의 境地인 清新灑落을 찾는 데 있었다. 이것은 士林派가 추구하는 공통된 美意識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16세기는 도학적 신문학이 성립된 시기로 退溪와 栗谷을 중심으로 한 士林들에 의해 심화되고 확대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당시 文學論을 정립하는데 하서 또한 退溪나 栗谷 못지 않게 기여하고 있음을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물론 지나치게 道學에 경도된 문학으로 비판하기도 하나 河西가 문학이 가지는 效用性마저 부정할 것은 아니며 단지 載道를 강조했을 뿐이다.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다양한 연구로 文學史的 평가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參考 文獻>

『朝鮮王朝實錄』

金麟厚, 『河西全集』,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9.

——, 『河西全集』, 하서선생기념사업회, 1989.

——, 『河西全集』, 『韓國文集叢刊』 33, 民族文化推進會, 1990.

——, 『河西先生文集』 2, 景仁文化社, 1998.

——, 『國譯 河西全集』 上·中·下, 河西先生紀念事業會, 1987.

宋 純, 『俛仰集』, 『韓國文集叢刊』 26, 民族文化推進會.

李 滉, 『退溪全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회, 1978.

鄭 澈, 『松江集』, 『韓國文集叢刊』 46, 民族文化推進會.

- 洪良浩, 『耳溪集』, 『韓國文集叢刊』 241-242, 民族文化推進黨.
- 尹榮善, 『朝鮮儒賢淵源圖』, 東文堂, 1941.
- 불함문화사[편], 『韓國漢文學論文選集』 11-35, 불함문화사, 2002.
- 『東國文廟十八賢年譜』, 景文社, 1980.
- 姜敷錫, 『典故大方』, 漢陽書院, 1924.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1996.
- 광주광역시,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95.
- 국사편찬위원회, 『韓國史』 11-12, 국사편찬위원회, 1977.
- 金東建 共編著, 『河西 金麟厚 詩語 索引』, 이희문화사, 2002.
- 김병주, 『하서 김인후의 문학과 사상』, 사단법인 하서기념회, 2000.
- 김상오,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문묘중향의 경위」, 『전북사학』 제5집, 전북대학교, 1982.
- 金容淑 編著, 『백련초해』, 筆巖書院, 2003.
- 백승중, 『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네』, 돌베개, 2003.
- 신호열 역주, 『하서시선』, 솔출판사, 1997.
- 옮김, 『긴 담장에 걸리운 맑은 노래』, 현실문화연구, 2002.
- 이민홍, 「조선전기 자연미의 추구하고 한시」, 『한국한문학연구』 제15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92.
- 이종건, 「소쇄원사십팔영고」, 『어문집』 제6권, 마산대, 1984.
- 이창현, 「하서 김인후의 시문학교」, 『동악한문학논집』 제6집, 동악한문학회, 1992.
- 鄭堯一, 「韓國古典文學理論으로서의 道德論 研究」, 서울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4.
- 정익섭, 「호남가단에서의 하서 김인후의 위치」, 『동양학』 제17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7.
- 정후수 옮김, 『백련초』, 문이재, 2002.
- 조기영, 「하서 김인후의 시 연구」, 연세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趙麒永, 『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研究 : 道學的 世界認識과 詩的 範疇』, 아세아문화사, 1994.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96.
- 지종욱, 「호남시조의 계보연구」, 원광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河西紀念會[編],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1994.
- 河西學術財團[편],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第3輯, 河西學術財團, 2005.
- 鄉土文化開發協議會[共編], 『河西金麟厚의 道學과 文學思想』, 光州廣域市, 1995.
- 鄉土文化開發協議會[편], 『河西 金麟厚의 文學과 道學思想』, 1993.
- 허경진 옮김, 『河西 金麟厚 詩選』, 평민사, 2000.
- 黃元九, 「李朝 禮學의 形成過程」, 『東方學志』 6, 연세대학교 동방학 연구소, 1967.

Abstract

*On the Lives and Poetic Traits of Hasub In-Hoo Kim / Kim Sung Jin**

Kimjeonghu as the scholar who researches the past and present door of ship construction postscript is causing a many effect in the offspring. If him ideology and study assertion of that oneself compared to method from it is visible a more prominent quality. He follows in each Cabinet conference field and clearly, it sets an aim, it follows it studies with it emphasizes respectively in affection transgression phase and the method side which arrives to that aim. It appears from all fields and Cheng(清) accommodating the country study the first phase there is a possibility of doing.

If the phase which studies the letter of the Chusa Kimjeonghui the method from the phase and the track which study a poem are same. First Cheng(清) it reads extensively the study of the country first, it goes against it ascends and it learns it is and the sugar country the Song(宋) country, it learns a time again and. And it listens last in the Jin(晉) country and it is consistent the attitude which respects the old thing which it says that it goes. Only the phase which studies a poem Sodongpa about under the light oil asserts the method which enters with Dubo with the place where there is a faith home of wife's parents in Dang countries to confront.

Only the phase which studies a poem the disturbance green onion about under the light oil asserts the fact that it enters with two steps with the place where there is a faith home of wife's parents in the sugar country to confront, The phase which learns the letter Dang countries about under the light oil Jin countries with the conclusion wife put up the fact that it enters

* Lecturer of Jeonju Univ. / klh96203@hanmail.net

into Jin countries with the banner and it made. Though the aim and time it is different but are visible the aspect which is identical from the cotton of the method and the system.

The phase which learns Chusa letters being asserted most inside plentifully is, from his collection of works. This about under materializing in detail quite, the fact that it presents the scholastic course means that passes over the teaching of the teacher, specially korea calligraphy histories there is a possibility criticism about under likening one thing talking to the method which studies the letter weight company study also bearing fruit which is different.

Gimjeonghui's study method premises fair and objective judgment in viewpoint that seek is right, understood exposition and research by expedient. Because Gimjeonghui's study arrives in which visual point, target is established, it can be product of one side enumeration district city to present specific stage to reach in the target. That is, recognized that need systematic and realistic step to reach in target.

Gimjeonghui is based on truth and saves truth spiritually elaborate bibliographical study of Chinese classics in own study apply.

It discusses from this dissertation and also the case of the past and present crane which does to sleep is spoken with in the historical investigation crane where and it is different it is not.

This dissertation argued in epigraphy side whether autumnal thoughts accommodates Cheonghak and contributed how in our learned circles. Hereupon, epigraphy of autumnal thoughts examines concluded process and result, it searched the study questionable matter of the Gimjeonghui which is contained to that place from calligraphy position and it made with conclusion.

Chusa Kimjeonghui as the ship construction postscript thread scholar it accomplished a big achievement from the past and present crane and the

painting and calligraphy. He as the philosopher thought assertion description below compared to, very it is exceptional an interest in historical investigation and the painting and writing of the gravestone to pursue the fact that right from exist day with character to make a spirit, to have.

This dissertation analyzed the objection regarding the picture from in art objection of the Chusa. When trying to analyze the poetry and prose crane objection and a calligraphy objection of the Chusa, with the fact that it will explain the principal of general technique and calligraphy.

Mungyongron sets a what kind of aim and when the hazard which arrives to that aim only it passes by certainly and it is a phase which it does.

The Chusa landscape painting well. And it recognized the Wangyou of the Dang country most. The Chusa the picture with poetry was similar, the poetry with the picture recognized the similar thing in the world where the dimension is high.

【Key words】 In-Hoo Kim, Wen yi zai dao(文以載道), Literary Criticism, ethics;moral philosophy

투고일 : 4월 30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3일